

능률속으로
시민결의로

위원장

2024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2024. 6.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목 차

1. 공무국외활동 개요	3
2. 시찰단 역할 분담	4
3. 시찰 일정	6
4. 기관방문 내용	7
5. 주요 시찰내용	34
6. 출장경비 정산내역	49
7. 관련 보도자료	52

2024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해외 주요도시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비교시찰을 통해 상임위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우수 정책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정활동 활용 계획 및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1

공무국외활동 개요

- 기 간 : 2024. 5. 11.(토) ~ 2024. 5. 17.(금) (5박7일)
- 시 찰 지 :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지
- 주 제 : 서울관광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가치 창출
- 방문기관 및 목적

방문기관	방 문 목 적
1. 슈테델미술관	슈테델미술관을 포함 마인강변 박물관거리를 시찰해 서울시의 박물관·미술관 연계 방안 벤치마킹
2. 하이델베르크 고성	현지 역사적 배경 및 재건·복원과정 확인을 통해 한양도성의 미래 발전방향 및 연계성 모색
3. 라인란트팔츠 주의회	현지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을 청취함으로써 입법적 노력을 통한 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
4. 라인 튀데샤임 일대	드로셀가세의 골목 사례를 통해 서울시 핫플레이스 및 골목길의 발전·홍보방안 등 벤치마킹 등
5. IMEX Frankfurt 2024 초청방문	MICE 인프라 영향력을 경험하고, 서울 홍보관 활동을 통해 2025 ICCA 총회 유치전 지원
6. KTO 프랑크푸르트	현지인 관광 수요 증가 위한 논의 및 향후 협력점 모색
7. 괴테의 생가	역사적 인물의 가옥을 관광 자원화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
8. 독일 올림픽 체육 연맹 (DOSB)	노인체육 및 e스포츠 등에 대한 정책 사례 청취 및 벤치마킹
9. 뢰머광장 일대	뢰머광장을 중심으로 대성당 및 박물관·미술관을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10. 예술과 미디어센터 (ZKM)	예술, 공연, 전시, 교육 등 다목적 기능 시설의 사례를 경험함으로써 서울시 시설 건립 가능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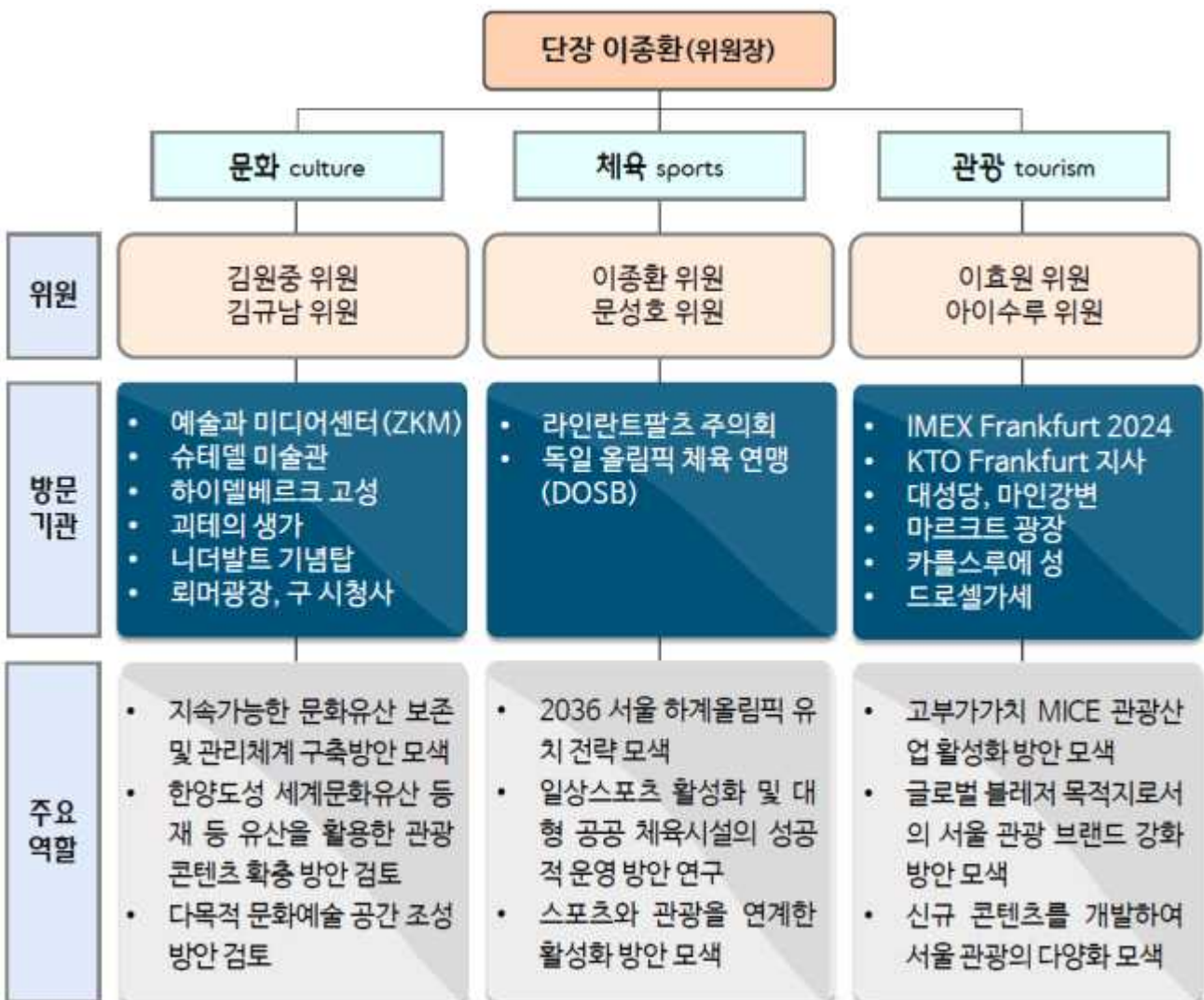
2

시찰단 역할 분담

□ 시찰단 구성 : 총 10명

- 단 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종환
- 단 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5명
 - 김원중 의원, 김규남 의원, 문성호 의원, 이효원 의원, 아이수루 의원
- 수행직원 :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4명
 - 오주석 팀장, 임창균 전문위원, 심형준 조사관, 정재운 조사관

□ 역할 분담



□ 개인별 공무국외활동 업무분장

구분	직위	성명	업 무 내 용	분야
시의원 (6명)	위원장 (단장)	이종환	○ 공무국외활동 총괄	전체 총괄
	부위원장	김원중	○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 모색 ○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서울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 방안 검토	문화
	위 원	김규남	○ 다목적 문화예술 공간 조성방안 검토	
	위 원	이종환	○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 모색 ○ 일상스포츠 활성화 및 대형 공공 체육시설의 성공적 운영 방안 연구	체육
	위 원	문성호	○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활성화 방안 모색	
	위 원	이효원	○ 고부가가치 MICE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 글로벌 블레저 목적지로서의 서울 관광 브랜드 강화 및 신규 여행수요에 맞는 서비스 확대 방안 모색	관광
	위 원	아이수루	○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여 서울관광의 볼거리 및 즐길거리 다양화 모색	
시의회 직원 (4명)	의사지원팀장	오주석	○ 의원수행 및 현지일정 총괄 ○ 예산 및 회계 관리	행정실무 총괄
	전문위원	임창균	○ 국외출장 정책 자료수집 총괄 ○ 의전행사 지원 및 의원보좌	자료수집 총괄 및 의전지원
	입법조사관	심형준	○ 방문도시 기관별 자료수집 ○ 의전행사 지원 및 의원보좌	자료수집 및 의전지원
	입법조사관	정재윤	○ 방문도시 기관별 자료수집 ○ 의전행사 지원 및 의원보좌	자료수집 및 의전지원

일자	방문지(출발지)	방문기관
5/11(토) (제1일)	인천(KE945) ▶ 프랑크푸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출발(10:50) · 프랑크푸르트공항 도착(17:40)
5/12(일) (제2일)	프랑크푸르트	<현장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테델 미술관(10:00-12:00)
	하이델베르크	<현장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델베르크 고성(14:30-16:30)
5/13(월) (제3일)	마인츠	<기관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인란트팔츠 주의회(09:30-12:00)
	뤼데스하임	<현장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더발트 기념탑, 드로셀가세(14:00-16:30)
5/14(화) (제4일)	프랑크푸르트	<초청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EX Frankfurt 2024 참관(09:00-13:00)
		<기관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관광공사 프랑크푸르트 지사 (14:30-16:00)
		<현장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테의 생가(16:00-17:00)
5/15(수) (제5일)	프랑크푸르트	<기관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올림픽 체육 연맹(09:30-11:30)
		<현장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뢰머광장, 구 시청사, 대성당, 마인강변 (14:00-16:00)
5/16(목) (제6일)	카를스루에	<기관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과 미디어센터(ZKM)(10:30-12:30)
5/17(금) (제7일)	프랑크푸르트 ▶ 인천(KE9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크푸르트 공항 출발(5/16(목) 19:40) · 인천공항 도착(14:35)

※ 5/16(목) 당초 계획(오후 현장방문) 대비 일정 변경사유 : 공무국외여행심사 시 15일 일정이었으나 기관방문 일정이 급히 변경되어 최종계획서에 반영하지 못함. 오전 기관방문 후 공항까지의 이동 시간을 감안하여 현장방문 일정은 불가피하게 취소하였음.

기관방문 : 라인란트팔츠 주의회 (Landtag Rheinland-Pfalz)

《 기관개요 》

○ 기관소개

- 독일 라인란트팔츠주(Land Rheinland-Pfalz)는 독일의 16개 연방주 중 하나로 남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19,846km²의 면적에 약 4백만명이 거주하고 있음. 독일 와인 수출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 면적의 42%가 숲으로 되어 있고 라치 호수를 비롯해 여러 화산 분화구 호수가 산재, 라인강이 흐르고 있음. 2,000여 년의 오랜 역사로 주 전역에 400여 개에 달하는 박물관과 많은 성과 유적이 위치함

○ 주요 특징

- 의원은 5년 단위로 101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의장단, 원로자문회의(운영위원회), 17개 전문위원회(상임위원회) 등의 합의제 기구가 있음
- 서울시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 3개 분야의 정책을 1개의 상임위가 그 사무를 관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라인란트팔츠 주의회에서는 각각의 분야를 내무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가 나누어 관장하고 있음
- 홈페이지: <https://landtag-rlp.de>

방문일시 : '24. 05. 13. (월) 09:30 ~ 12:00

방문장소 : Platz d. Mainzer Republik 1, 55116 Mainz

방문목적

- 상호 기관 간 문화교류 및 관광 활성화 방안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법령 제·개정 현황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함.

면담자 : Kunz, Patrick(유럽과 하나의 세계 위원회 위원장)

□ 질의·답변

Q. 라인란트팔츠주의 노인 및 스포츠 정책은 어떠한가?

A. 스포츠와 관련된 정책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은퇴자들이 코치가 되어 어린 학생들 혹은 다른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를 가르치고 있음. 이는 노령자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임. 우리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음. 독일은 아직도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문화가 있어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Q. 한국은 심각한 노령화로 인해 스포츠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여 의료비 등을 절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독일은 어떻게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A. 노인의 건강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지 질병 등을 치료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많은 논의가 필요함. 다만 노인들이 꾸준히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이 노인을 도와주는 정책도 같이 시행하고 있음. 말씀하신 스포츠 활동도 활동에 흥미가 있어야 노인들이 참여할 것이므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음.

Q. 스포츠를 넘어서 문화에서도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독일에 이런 정책이 있는지?

A. 스포츠 외에도 오케스트라 활동과 같이 스포츠와 문화를 결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들레길 등 전국에 여러 중요 체험구역(세계문화유산 등)에서 노인들이 같이 활동하면서 사회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또한 카니발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협력과 다양한 성취를 통해 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특히 마인츠는 카니발이 유명하기에 노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함. 현재 카니발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음.

Q. 카니발의 운영 주체는 어떠한지?

A. 당연히 시가 행사를 위해 투입하고 있는 예산이 있으며, 규모가 큰 만큼 주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음. 기타 카니발을 위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음. 행사는 핵심 주관 단체 아래 산하 단체들이 카니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모금 등의 행사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있음.

Q. 대규모 시민 행사에는 노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주는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A. 노점을 위해선 사전에 신청이 필요하며, 시는 정확한 구역과 시간을 정하고 판매 물품도 미리 정해야 함. 카니발 외에도 대규모 와인행사를 하고 있으며,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사전 신청이 필요함. 모든 시민들이 와인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와인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놀이들을 구성하고 있음.

- Q. 라인란트팔츠에는 7개의 세계유산이 있는데, 이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정책은 무엇이며, 대규모 행사로 인한 손상을 막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 A. 우리 주는 매년 100억 원 정도를 관광 분야에 투자하고 있음. 다만 일부 관광객에게 부담하게 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활동을 하고 있음. 또한 이런 재정 수입이 있다면 우리의 명소들을 개발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함.
- Q. 문화재 보존과 개발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함. 특히 코블란츠의 사례를 참고하여 소개바람.
- A.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훼손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서 케이블카를 행사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설치하기로 하였고, 이후 케이블카 존치 필요성을 인정받아 현재 까지 운영이 유지되고 있음. 또한 개발을 위해 지정 취소를 감수하기도 하였는데, 문화유산은 중요한 것으로서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임.
- Q. 시와 주에서의 문화재 심의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문화재 심의에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되는지?
- A. 코블란츠의 사례는 연방이나 주정부가 아닌 시가 결정한 사례이며, 마인츠의 경우 박물관 확장을 위해 시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부결되어 확장 정책이 종료된 사례가 있음.

□ 기관방문 사진



분회의장



정문 앞



기념품 교환

□ 방문내용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 총 평 >

- 라인란트팔츠주가 가진 서울시와의 유사점으로는 ▲ 우수한 지형 조건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 급격한 노령화 사회 ▲ 역사 유적지의 보존과 개발 간 가치 대립 ▲ 축제를 통한 지역 간 교류와 관광 활성화 정책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라인란트팔츠주의 역할을 청취하였음.

< 개발과 보존의 조화 >

- 라인란트팔츠주는 7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동시에 문화재와 자연 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하고 있음.
- 추진 중인 내용으로는 많은 국가들이 시도하고 있는 관광세 등을 도입하여 관람객이 현지의 문화유산을 즐기되 재정적인 안정성에 기여하도록 하고, 유산의 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재방문을 유도하고 홍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서울시는 최근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수익을 남산 생태환경 보전 등 공공재원으로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개발 정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자 마땅한 조치라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음.

< 노인체육 활성화 >

- 2023년 통계 기준 OECD 국가 중 노령화 지수에서 대한민국과 독일이 5위와 6위를 차지하여 각국은 노인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 라인란트팔츠주의 경우 은퇴자들이 코치가 되어 학생 또는 시민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노령자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문화가 남아 있어 노인과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는 노인 체육 활성화에 대한 요구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특화된 정책은 미흡한 편임. 우리 위원회는 지난 해 노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시니어 체육 지도사 양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던바 라인란트팔츠주를 포함 해외 사례를 조사하여 서울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또한 서울시는 조부모가 육아조력자 역할을 할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라인란트팔츠주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 외에도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노인의 활동과 육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지역축제 활성화 >

- 독일은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한 국가로서 제도뿐 아니라 수백 년간 쌓아온 지방문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축제가 존재함. 서울의 경우 지역축제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축제를 운영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한정되고 있으나, 라인란트팔츠주의 경우 인프라 구성에만 지원할 뿐 대부분 축제 참가자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축제 전 모금 행사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일종의 기부 문화 정착을 기반으로 형성된 운영 방식으로서 우리의 축제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입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꾸준한 연구가 필요함.
- 이는 지방자치의 발달과도 연관된 것으로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시민사회를 발전시킨다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장기간의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기관방문 : IMEX Frankfurt 2024 초청 참관

《 행사 개요 》

○ 행사소개

- 행사명 : IMEX Frankfurt 2024
- 기간 : 2024. 5. 14.(화) ~ 5.16.(목)
- 장소 : Messe Frankfurt
- 규모 : 약 10,000명 이상 예상
 - 바이어 : 약 90개국(3,000명 이상)
 - 전시자 : 약 2,900개사/ 미디어: 약 20개국
- 내용 : MICE 바이어 상담회 및 설명회를 통한 신규 수요 발굴, 주요 MICE 유관기관과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및 뉴노멀 MICE 대비 최신 동향 파악이 가능한 MICE 전문 전시회

○ 주요활동

- IMEX Frankfurt는 매년 상반기 개최되는 유럽권 MICE 전시회로서, 분야별 회의에 따른 특화 프로그램 및 어워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개최 장소인 Messe Frankfurt는 세계 2위 규모의 전시장으로 1909년 개관 후 꾸준히 확장하여 편리한 교통 인프라, 특색 있는 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무역전시회와 국제 컨벤션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홈페이지: <https://imex-frankfurt.com>

방문일시 : '24. 05. 14. (화) 09:00 ~ 13:00

방문장소 : Emser Brücke 2, 60326 Frankfurt am Main

방문목적

- 유럽 최대의 MICE 전문 전시회(IMEX Frankfurt 2024)에 서울 홍보관 운영 및 SMA(Seoul Mice Alliance) 공동 유치마케팅 추진으로 글로벌 최적의 MICE 개최지 서울의 위상 제고, MICE 산업의 동향 파악 및 시사점 도출
- 2025 국제컨벤션협회(ICCA) 총회 서울 유치 관련 정보 공유, 각종 서울 기반 국제회의(S-BIC) 유치를 위한 전략방안 모색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IMEX Frankfurt에 참가함으로써 유치지 선정에 대한 서울시 전체의 높은 관심도를 알리고, ICCA 회원사를 대상으로 2025년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총회에 참가해 줄 것을 독려하는 등 IMEX Frankfurt 2024 서울 홍보관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서울시 참가자 및 회원사 격려

□ 면 담 자 :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등

□ 주요활동

○ 방문경위

- ‘IMEX Frankfurt’ 는 매년 독일과 미국에서 개최되는 미스(MICE) 관광 전문 박람회로, 올해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Messe Frankfurt에서 개최되며, 서울시는 서울관광재단 과 서울미스얼라이언스(SMA)에서 서울 홍보관을 운영함
- 2024년 박람회에서는 ‘2025 국제컨벤션협회(ICCA) 총회’ 를 서울에서 유치하기 위한 홍보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박람회 종료 약 3주 후 총회 개최지를 발표할 예정임
- 따라서 서울시 관광체육국과 서울관광재단은 이번 박람회가 총회 개최지 발표 전 마지막 공식행사인 만큼 서울시의 문화·체육·관광 관련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지로 초청함.

○ 주요 확인사항

- IMEX Frankfurt 2024 서울 홍보관 참가자 및 회원사 현황
- IMEX Frankfurt 2024 세계 참가국별 홍보관 규모 및 진행방법
- MICE 행사 개최를 위한 IMEX Frankfurt 2024 서울 홍보관 방문자수, 관심사 등 상담회 /설명회 진행상황
- IMEX Frankfurt 2024 서울 홍보관 한류체험 이벤트 진행상황
- IMEX Frankfurt 2024 서울 라운지 및 안내데스크 운영 현황
 - 대형 스크린을 통한 서울 MICE 인프라 소개 등 서울 홍보 영상 상영 및 홍보물 배포 현황
 - IMEX Frankfurt 2024 외국 홍보관과 비교 시 부스 면적, 참가자수 등 서울 홍보관이 추후 개선해야 할 사항
- 서울 MICE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및 기타 지원사항

○ 활동내역

- 행사 전 서울관광재단 및 SMA 회원사 격려, 사전 간담회
-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아부다비 등 각국 주요 홍보관 대표 방문
- 국제컨벤션협회(ICCA) 홍보관 방문 및 2025년 총회 서울 개최 의지 피력
- 서울 홍보관 치맥 페스타 도우미 활동

□ 기관방문 사진



서울 홍보관

ICCA 홍보관

치맥 페스타

□ 방문내용 및 활용계획

< 프랑크푸르트 마이스 인프라 현황 >

- ‘IMEX Frankfurt 2024’ 가 개최된 메세 프랑크푸르트(Messe Frankfurt)는 실내 전시면적만 약 39만㎡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향후 2030년까지 50만㎡ 이상의 규모로 확장할 계획임.

< 서울시 마이스 인프라 현황 >

- 서울시의 MICE 인프라 규모는 COEX 등을 포함해 6.5만㎡ 규모로 2022년에는 2030년까지 23만㎡ 규모로 확장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음에도 규모면에 있어서는 독일 현지 인프라 규모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다만 서울시는 서남권(마곡), 도심권(서울역, 남산, 광화문 일대), 동남권(잠실~코엑스) 3개 거점별 ‘마이스 협력단지(클러스터)’ 를 조성하고 쇼핑, 문화, 교통, 관광 등 즐길거리와 편의시설을 집약함으로써 연계를 통한 마이스 관광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음.
- 한편 서울시 관광체육국은 대외협력기금을 통해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연간 예산 규모는 2.5억 원에 불과해 서울 권역 외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국제 마이스 관광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마이스 경쟁력 확보 방안 >

-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국제 마이스 시장이 약 2,0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마이스 업계 선두주자인 독일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서울시는 ‘2025 국제컨벤션협회(ICCА) 총회’ 개최 시 약 118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마이스 시장 점유율 경쟁의 교두보로 삼고자 우리 위원회를 초청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음.
- 최근 중국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세계 2위, 3위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건립해 국제 마이스 시장에 뛰어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관련 인프라 확보가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확한 사실로 보임.
- 따라서 서울시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지역 내 시설 간 혹은 타지역과의 밀접한 연계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K-Culture를 활용한 국제적 관심을 유인하되, 장기적으로 한국과 서울만의 고유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기관방문 : 한국관광공사(KTO) 프랑크푸르트 지사

《 기 관 개 요 》

○ 기관소개

- 한국관광공사 프랑크푸르트 지사는 1974년부터 독일어를 사용하는 시장(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과 체코와 헝가리에 한국관광 홍보기능 수행하고 있음

○ 주요사업

- B2B/B2C 고객을 위한 관광정보 제공
- 여행업계와 협력하여 한국여행상품 개발 및 판매 촉진
- 국내 관광 사업자와 독일어 사용 시장 간 인터페이스 기능
- 관광 박람회·로드쇼·이벤트 참가, 언론홍보
- 홈페이지 : <https://german.visitkorea.or.kr>

□ 방문일시 : '24. 05. 14. (화) 14:30 ~ 16:00

□ 방문장소 : Stiftstraße 2, 60313 Frankfurt am Main

□ 방문목적

- 한국관광공사 프랑크푸르트 지사는 독일어권 국가들 중 유일한 현지 지사로서, 서울 관광에 대한 현지인들의 시각과 현지인들을 관광 수요화 하기 위해 지사와 서울시가 기울여야 할 노력에 관한 논의 등을 통해 현지인들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전략방안 모색
 - 지난해 서울시는 3천만 관광객, 1인당 지출액 3백만 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을 70%를 의미하는 3·3·7·7 관광시대를 열어간다는 계획을 발표, 성공적인 세부전략 및 추진방안 모색 필요
- 현지의 관광수요 활성화 정책과 과잉관광 해결책에 대한 성공사례를 청취하여 서울시의 관광정책을 개선하는 데 반영
 - 시의회는 과잉관광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관광 진흥 조례」 개정 사례를 공유하고 독일의 사례를 청취

□ 면 담 자 : 은유리 지사장, 정지인 부지사장

□ 질의·답변

Q. 서울시 관광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예산 부족에 시달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장관 등의 방문도 필요하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A. 외교부, 대사관과 달리 각국마다 지사를 설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선진적 관광정책 개발을 위해 연구하고 있지만, 현실적 여건에 부딪히는 부분이 많음. 현재는 K-컬처를 통해 한국이 알려져 미래는 밝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서울뿐 아니라 지방으로의 관광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Q.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로 도시 사이를 연계하고 있고, 한국은 먹거리로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럽인이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관심은 무엇인지?

A. 유럽인이 알고 있는 한국의 도시는 사실상 제한적인 탓에 젊은층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함. 실제 기대 이상으로 한국 관광 콘텐츠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며, 도심 근거리에서 등산, 역사, 전통 등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젊은이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임.

Q. 상품 개발의 초점은 무엇이며, 한국에 대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와 타국가에 비해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A. 과거에는 단체상품이 시장에서 주를 이뤘으나 개별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품 개발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학생, 비즈니스 등 계층과 목적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류에서 파생된 관심도가 높아져 한국 콘텐츠에서 노출된 장소를 여행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Q. 인프라의 차이가 마이스 관광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A.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싱가포르의 경우, 규모가 작고 집중돼 있는 반면에 우리는 개별 센터의 규모는 작지만 분산 배치되어 있어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다만 일일이 알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충분한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싱가포르에 비해 분산돼 있을 뿐 인프라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서비스 질에 있어서는 싱가포르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함. ICCA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싱가포르보다 더 많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어 꾸준한 지원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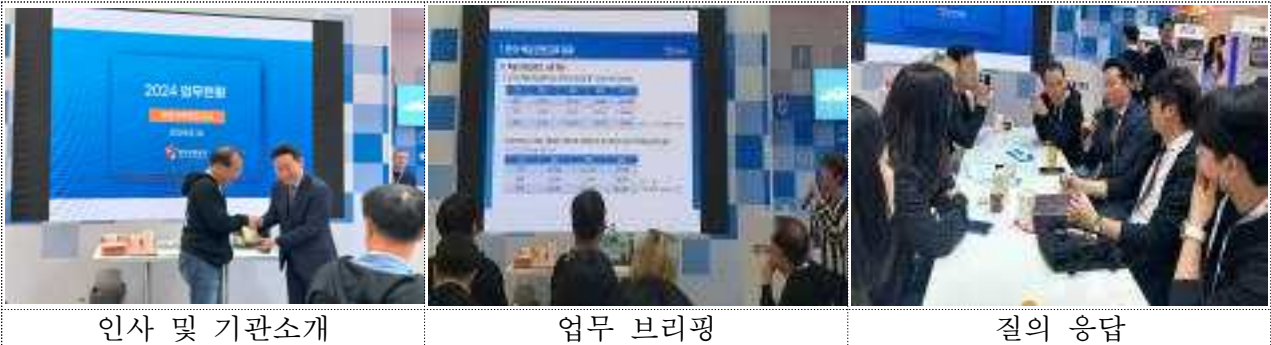
Q. KTO는 많은 해외지사를 설립했는데, 서울관광재단의 해외지사 설립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A. 지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사실임. 실제 최근 설립된 멕시코 지사는 현지에서 한국 관광에 대한 정보 제공의 루트로 잘 활용하고 있음.

Q. 최근 서울시는 “SEOUL, MY SOUL” 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브랜드가 관광 수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A. 당연히 브랜드는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함. 다만 브랜드와 콘텐츠의 지속성이 확보돼야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질 수 있고, 이를 활용한 관광수요 창출이 가능한데,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브랜드가 자주 변경돼 지속성이 없다는 점이 아쉬움.

□ 기관방문 사진



□ 방문내용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 해외 및 독일 관광객 현황 >

- 관광산업에 있어 인바운드 시장은 한 도시의 노력만으로는 수요창출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주요 거점에 32개의 해외지사를 운영하고 있음.
- 코로나19 발생 전 2019년 독일인 입국자수는 약 12만명이었으며, 2023년은 13.2만명으로 증가한 수치를 나타냄. 다만 러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입국자수를 기록했던 독일은 K-컬처 및 K-콘텐츠의 영향으로 프랑스 보다 적은 입국자수를 기록함.

< 해외 관광객 확대 방안 >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K-컬처 등이 대한민국 및 서울의 매력을 알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만의 고유 콘텐츠를 무기로써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특히 K-콘텐츠를 활용하여 서울지역 외 지방의 매력을 알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과 지방과의 연계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실례로 현지 젊은 계층은 K-콘텐츠를 통해 도심 근거리에서 등산, 역사, 전통 등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매력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지역 콘텐츠를 개발하고 연계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SNS 서비스의 발달로 개별적으로도 국외 관심 분야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어 단체 관광상품에서 개별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 비중이 변화되고 있음. 따라서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콘텐츠 홍보와 더불어 개별 관심사가 실제 관광 체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의 타당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 서울시 마이스 관광 특징 >

- 마이스 관광 경쟁력 확보와 관련하여 아시아권에서 선두에 위치한 싱가포르의 경우 작은 도시국가로서의 단점을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마이스 관광의 집적효과를 누리고 있기는 하나 서울의 경우 분산 배치된 시설을 기타 관광 콘텐츠와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시와 자치구 간 경계, 서울지역과 지방 간 경계에 있어 예산 편성과 사업추진 주체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입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서울관광재단 해외지사 설립 검토 >

- 한국관광공사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30개가 넘는 해외지사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관광 관련 기관의 해외지사 설립 사례가 없어 서울관광재단 해외지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현재까지 논의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 이번 방문에서 한국관광공사 프랑크푸르트 지사는 해외지사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나 설립 이전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각 해외지사와의 적극적인 협업과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설립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데이터의 축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서울관광재단은 해외지사 설립에 필요성을 우리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오고 있으나 당위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와의 교류 및 협의 내용과 더불어 지사 설립의 당위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임.

기관방문 : 독일 올림픽 체육 연맹 (Deutscher Olympischer Sportbund)

《 기 관 개 요 》

○ 기관소개

- 독일 올림픽 체육 연맹(DOSB)은 비정부 기구로 독일 체육 연맹(DSB)과 독일 올림픽 위원회(NOK, 1895년 출범)가 2006년 5월 합병하여 창설되었으며, 약 2,700만 명의 회원과 87,000개의 스포츠 클럽으로 조직되어 있음

○ 주요활동

- 독일 올림픽 체육 연맹이 출범하기 이전 독일 체육 연맹(DSB)은 주 단위 체육 연맹과 종목별 체육 연맹으로 조직되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양성하는 단체였으며, 독일 올림픽위원회는 독일 도시에서의 올림픽 추진과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기관이었음
- 독일은 1916년, 1936년 베를린 올림픽과 1972년 뮌헨 올림픽 등 총 3번의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2018년과 2022년 뮌헨, 2024년 함부르크, 2032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등의 올림픽 유치를 추진했던 바, 관련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음
- 홈페이지 : <https://www.dosb.de>

□ 방문일시 : '24. 05. 15. (수) 09:30 ~ 11:30

□ 방문장소 : Otto-Fleck-Schneise 12, 60528 Frankfurt am Main

□ 방문목적

- 독일 올림픽 체육 연맹(DOSB) 방문을 통해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의견 교환 및 다양한 전략 모색
- 서울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2018년부터 범정부적인 올림픽 유치 협력과 IOC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개시하였으며, 2036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추진
- 서울시의회는 2019년 2월 「2032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유치 동의안」 의결을 시작으로, 최근에도 2036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 등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 2032년 서울올림픽 추진 당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도 함께 경쟁 하였던 바, 최근 독일의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2036 서울올림픽 개최 추진을 위한 공조 가능성과 방향 모색
-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7개 종목)되어 진행되었는데, e스포츠 강국인 양국 간의 협력방안과 국제 올림픽 종목 채택 여부에 대한 의견 교환

□ 면 담 자 : Katrin Grafarend 국제부 국장 외 2명

□ 질의·답변

Q. DOSB와 각 체육협회와의 지위 관계는?

A. DOSB는 각 체육협회의 최상위 조직으로서 1년에 한 번 전체 모임을 개최하여 각 종목 별 체육협회의 운영현황 등을 대면 공유하고 있음.

Q. 재정 지원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지, 기본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지?

A. 정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독립적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있음. 매년 4.6억 유로가 필요하지만 행정운영비를 포함하여 지원금 없이 자체 사업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인력 또한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있음. 연방 차원의 지원도 없으며, 건물, 인건비 등 모두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다만 일부 대기업이 후원하고 있으며, 연맹 전체 인원이 200명밖에 되지 않아 비교적 운영비가 많이 드는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그만큼 인력이 부족한 면도 있음. 참고로 독일 축구 협회의 구성원은 600명임.

Q. 자원봉사자의 연령대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A. 자원봉사자의 충원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면, 매년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음. 과거에 비해 노령화로 젊은층이 일하기에 어려운 여건이 있어 젊은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 중임.

Q. 재정적인 부분 말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

A. 이 역시 어려운 부분이며 현재 논의 중인 사안임. 연맹 일을 할 경우 다른 소득 업무를 대체하여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적게 일해도 연금을 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등의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현재 협의 중임.

Q. 독일은 한국보다 e스포츠의 시장 규모가 크지만, e스포츠를 스포츠가 아닌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A. 첫째는 DOSB 회원이 되려면 조직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독일 e스포츠계는 아직 구조적으로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Q. 지원금이 없으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비인기 종목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가령 태권도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부족해 점차 쇠퇴하고 있는 상황임.

A. 당연히 그런 측면이 있으며, 실제로 비인기 종목은 지도자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럼에도 도전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엘리트 종목 육성과 전체 스포츠를 품는 정책 중 우리는 후자를 선택하고 있음. 영국과 네덜란드는 전자를 택해 독일은 순위에서 점차 밀리고 있는 상황이며, 그 가운데 지점을 찾아나가기 위해 계속 논의 중임. 다만 현재는 다양성이 더 중요하고 판단해 다양성 자체를 존중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음.

Q. 아시아에서는 이미 국제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바 있는데, 독일의 현황은 어떠한지?

A. 유럽에서도 일부 게스트 종목으로 채택된 적은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머지않아 e스포츠도 DOSB 회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음. 앞선 질문에 대해 두 번째 이유는 스포츠를 어떻게 정의하나의 문제인데, 가상 달리기나 활쏘기는 스포츠로 정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e스포츠의 분야가 너무나 다양해 범주화하기 어렵고, 전쟁 등을 묘사한 경우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고민되는 부분이 있음.

Q. e스포츠는 장애인/비장애인이 진정한 의미에서 경쟁이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DOSB도 이러한 점을 함께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A. 좋은 의견이며, 같은 고민을 계속해 나갈 것임.

Q. 노인체육을 위한 별도 정책이 있는지?

A. 노인체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따로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기존 회원이 고령층이 되면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예컨대, 워킹풋볼과 같이 고령층이 즐길 수 있는 종목을 운영 중인데, 경쟁력보다는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개발하였으며, 몸을 부딪치지 않고 무리 없는 신체 활동을 할 수 있어 인기가 늘고 있으며 회원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기관방문 사진



기관 브리핑



질의응답



단체사진

□ 방문내용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 독일 체육단체 현황 및 특징 >

- 독일 올림픽 체육 연맹(DOSB)은 서울시 체육회와 비교하여 민간조직이라는 점에서는 유사점이 있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점이 있음.
- DOSB는 운영비를 포함한 일체의 재정 지원 없이 비정부 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스포츠를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현재의 운영방식을 고수해 오고 있음.
- 다만, 대기업의 후원을 통한 민간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자원봉사자로서 근무하고 있음.

< 서울시 체육단체 현황 및 특징 >

- 현재 서울시체육회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별도 법인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나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체육의 진흥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운영과 체육진흥사업을 위한 서울시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 다만, DOSB는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되는 대신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일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인원의 증원 또한 쉽지 않은 형편이며, 자원봉사에만 의존하기에는 현실적 여건을 무시하기도 쉽지 않아 현재는 대체소득과 연금수혜 등의 가능성을 놓고 정부와 협의 중임.
- 또한, 비인기 종목의 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상 정부의 지원이 필수인데, DOSB는 엘리트 종목의 육성보다 전체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과 다양성에 비중을 높이 두면서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종목은 사실상 손을 놓게 되는 결과가 발생함.

- 우리의 경우, 스포츠 활성화를 국가정책으로 추진했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하여 체육회 또한 분할하여 운영한 적이 있으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현재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조직이 통합되었고, 각각의 내용은 통합된 조직 내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형편임.
- 다만, 운영비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종목의 다양성까지 고려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그 비용부담은 납세자인 시민 전체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정된 자원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각각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정책 기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범시민적 담론을 반영한 입법적인 노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독일 및 서울시 간 e스포츠 현황 비교 >

- e스포츠와 관련하여 각 정부의 제도적 차이로 인하여 체육과 산업으로 각각 다르게 분류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체적인 장애 유무와 관계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즐기고 경쟁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부분임.
- 서울시는 현재 경제정책실 창조산업과 소관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운용되고 있으며, e스포츠 활성화 사업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서울형 e스포츠 사업은 체육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등 e스포츠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e스포츠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인식되고 장애/비장애인 간 경쟁의 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세부사업까지 일원화된

조직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장기적으로 토론 및 공청회를 통해 명확한 분류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노인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 >

-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던바 흥미가 노인체육의 중요 요소임이 확인되었음. DOSB의 사례와 같이 노인이 부담 없이 신체활동을 하되 재미가 동반된 종목을 개발·보급할 경우 노인의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유지와 사회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 정책개발 혹은 유사사례 연구의 결과물을 반영하여 노인 체육 종목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입법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꾸준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기관방문 : 독일 예술과 미디어센터 (ZKM, Zentrum für Kunst und Medien)

《 기 관 개 요 》

○ 기관소개

- ZKM(Zentrum für Kunst und Medien)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와 카를스루에 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시, 연구,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임.
- ZKM은 과학과 예술 그리고 미디어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예술을 선보이는 것을 원칙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주요사업

- 전시 : ZKM의 약 15,000m² 규모의 전시 공간을 활용하여 미디어아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전시를 진행하고 있음.
- 행사 : 전시 이외에도 ZKM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다른 문화 장르인 오페라, 무용 공연과 더불어 시민 문화 행사인 대중음악 콘서트, 영화 상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ZKM의 대표적인 행사로는 ARD 라디오플레이데이(ARD Radio Play Days)가 있음.
- 연구 : ZKM은 새로운 과학 기술과 미디어 기술을 예술과 융합하기 위하여 이들 기술이 어떻게 예술과 융합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음. 현재 주요 연구로는 인공지능, AR 및 VR 등이 있음.
- 컬렉션 수집과 아카이브 : 미디어아트 센터로 시작한 기관인 만큼 이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있으며 시대별 비디오, 오디오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서 등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아카이빙하여 관리하고 있음.
- 그 외 ZKM의 주요 사항을 간행물로 정리·발간하는 등 출판 사업과 ZKM 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도 추진한 적 있음.
- 홈페이지 : <https://zkm.de/>

○ 주요시설

- 미디어 박물관, 현대 미술관, 시각 미디어 연구소, 음악 및 음향 연구소 등이 전시 시설과 함께 위치하고 있음.

□ 방문일시 : '24. 05. 16. (목) 10:30 ~ 12:30

□ 방문장소 : Lorenzstraße 19, 76135 Karlsruhe

□ 방문목적

- 버려진 공간을 예술문화 시설로 재건축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ZKM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 문화공간 조성에 활용
 - 탄약공장의 도시 내 예술공간으로의 탈바꿈을 통해 주민들에게 큰 정서적 위안과 다양한 종합예술 작품 제작·전시 공간 기능
 - ZKM은 미디어 종합시설로서, 미술·음악·조각 분야의 예술가들이 한 공간에서 작품을 제작·공유할 수 있으며, 교육생을 모아서 전문적으로 교육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ZKM에는 예술디자인 대학교와 시립 미술 갤러리가 함께 자리하고 있어 한 공간 내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 체험 가능
 - 서울 문화시설 건립 시에도 하나의 목적이 아닌 예술, 공연, 전시,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이 가능하도록 다목적 기능 시설 건립 검토

□ 면 담 자 : 알리스테어 허드슨(Alistair Hudson) 최고경영자,
헬가 헛캄프(Helga Huskamp) 최고운영자,
필립 지글러(Philipp Ziegler) 수석 큐레이터 등

□ 질의·답변

Q. 현재 ZKM의 운영 방향과 기관의 재정 사항은?

A. 현재 ZKM은 1인 대표체제로 되어 있으며, 기관 재정의 100%(주:50%, 시: 50%)는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되고 있음. 주와 시에서 우리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은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 즉 인건비, 관리비, 그 밖의 운영비로 한정되어 있음. 여기에는 우리의 메인 사업인 전시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특별주제 전시,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전시 등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자체 수입을 확보할 수밖에 없음. 그래서 우리는 자체 수입원으로 국가의 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혹은 EU의 특별 프로젝트 등을 수주하여 재원으로 확보하고 있음.

Q. ZKM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언폴드엑스 사업의 협력관계로 있다고 들었음. 앞으로 ZKM과 서울문화재단이 더 많은 협력을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각 기관을 이끄는 리더 간의 교류에 있어선 어떤 사항들이 필요한가?

A. 우리는 2022년부터 서울문화재단과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음.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와 한국의 물리적 거리와 시차가 우리의 교류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함. 그러기에 기회가 되어 많은 대면 교류를 할 수 있다면 양 기관의 협력이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보고 있음.

A. 안타깝게도 우리의 대표와 서울문화재단의 대표 간의 실질적인 교류는 없었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류를 위해선 대면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한국의 경우 우리와는 다르게 4-5년마다 기관의 장이 바뀌곤 하는데, 이럴 때마다 이전 대표와 쌓아온 인적 관계가 소멸하여 새로운 대표와는 바닥부터 다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점이 매우 아쉽다고 할 수 있음.

Q. ZKM 대표의 임기는?

A. 30여 년 전 설립된 ZKM은 현재까지 3명의 대표가 있었음. 대표의 처음 임기는 5년이며, 그 노력과 결과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음. 특별하게도 제2대 대표 페터 바이벨의 경우 ZKM에서 20년 동안 재직하였음. 이렇게 제2대 대표인 페터 바이벨씨가 오랫동안 ZKM의 대표로 재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의 ZKM을 만드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기 때문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대표가 ZKM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발전시킨다면 제2대 대표처럼 장기간 ZKM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Q. 백남준 작가의 작품이 있는 것을 보았음. 현재 서울시 소관 미술관인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백남준 작가를 기리는 공간을 운영 중인데, 백남준 작가의 후손과의 저작권 문제로 새로운 전시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ZKM에서도 다양한 국적의 작가들이 모여 작품을 만들고 이를 전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작가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혹은 소유권과 그리고 사용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A.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편적인 법률의 사항만 말씀드릴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음. 기본적으로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면 그 소유는 작가에게 있으며 작가는 이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음. 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것, 즉 사용권은 작가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되기에 작가의 허락이 없다면 그 작품을 활용할 수는 없음. 현재 EU는 창작자의 사후 70년까지 그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어 누구든지 이를 활용할 수 있음. 다만 이는 EU에만 한정된 사항이며, 다른 국가는 특히 한국에 상황에 대해서는 이를 다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음. ZKM도 여러 국적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시도 하고 있고 심지어 이를 거래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활용해서 다른 제작을 진행하려면 작가의 동의가 사전에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함.

Q. 본인이 미디어아트를 제작한 후 이를 ZKM이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저의 작품을 ZKM이 이를 활용하는 것에는 어떤 법적 혹은 제도적 문제가 있는지?

A. 미디어아트 분야도 다른 예술 장르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사용권이 적용됨. 그러기에 창작자의 허락이 없다면 어떠한 재제작 혹은 2차 창작은 불가능함.

Q. ZKM 설립 취지와 운영형태를 봤을 때 전 세계 어떤 기관보다 미디어아트의 선구자였다고 생각하는데, 미디어아트를 주제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라는 전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비엔날레인지 비평한다면?

A.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아트 분야의 전시 중에 영향력이 있다고는 알고는 있음. 다만 이 분야에 대하여 한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미디어아트는 다른 장르와 비교해서 작품 판매가 어려운 특성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다른 장르보다 미디어아트를 우선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의 미디어아트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선 비엔날레처럼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전시보다는 매년 미디어아트 특별전이 이루어진다면 서울에 있는 미디어아트 작가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A. 또한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비디오풀 활용한 미디어아트는 미디어아트 분야의 한 부분이며, 이를 넘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미디어아트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함. 현재 미디어아트 분야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이며 이를 접목하여 많은 예술가가 새로운 예술을 생산하고 있음.

Q. ZKM은 지난 30년간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전시를 선보여 주셨는데 그중 가장 인상적인 전시는 무엇인지?

A. 가장 인상적인 전시는 우리의 공간에 인공구름을 전시했던 것임. 인공구름을 만들고 관람객들이 그 구름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었던 전시를 지금까지도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음.

A. 이 구름은 기술자들과 예술가들이 협업을 통해서 만들었음. 우리가 인공구름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에는 우리의 직원들이 하나의 예술가라는 직업군만 있기보다는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직종의 근무자들이 있기 때문임. 이렇게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ZKM 아래 있는 것은 처음에 기관소개에서 말씀드린 새로운 기술을 예술에 접목하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임. 모두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AI 기술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음.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박물관들처럼 예술을 공부한 사람들만 채용하는 것이 아닌,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 예술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필요하기에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 관련 연구자들도 5명이 있으며 이 중의 3명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가임. 또한 ZKM의 연구원들은 ZKM 내부에서 진행하는 연구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ZKM의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해 다양한 외부 기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그 연구 결과를 그냥 연구의 결과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예술에 접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Q. ZKM의 조언으로 카를수르에 궁전을 파사드삼아 펼쳐지는 궁전라이트쇼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났는데, 현재 서울에서도 궁전라이트쇼와 같은 미디어파사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서울의 사업이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조언을 주시자면?

A. 솔로스리히츠피레 축제는 9년전 우리의 제안으로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ZKM이 아닌 카를 수르에시에서 축제를 조직하여 매년 운영하고 있음. 빛과 조명을 활용한 축제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선 이들 장비 중 가장 최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협업이 필요함. 그 이유는 광학 장비와 최신의 기술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비싸기 때문임. 또한 빛과 조명을 활용한 축제는 많은 도시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의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예술성 있는 작품을 보여주기보다는 그저 화려한 조명을 보여주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임. 그러기에 서울이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과 사드가 세계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삼성, LG와 같은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협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많은 예술가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와 예술성을 잘 융합시켜야 할 것임. 솔로스리히츠피레가 세계적인 축제가 된 것에는 다양한 예술가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빛과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려는 우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임.

Q. 현재 ZKM에는 해당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ZKM은 지원에 있어 해당 예술 분야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이를 만드는 예술가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A. 답은 하나일 것임. 예술에서의 기술은 작품이며 그것은 예술가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짐. 그러기에 우리는 해당 분야보다는 작가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특히 한국 기업 중에는 현대라는 기업이 예술가들을 위해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기관방문 사진



기념품 교환



단체사진



회의실

□ 방문내용 및 의정활동 활용계획

< 문화역량이 중심이 되는 도시 >

○ ZKM은 오스트리아 린츠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AEC)와 일본 동경의 인터 커뮤니케이션 센터(ICC)와 더불어 세계 3대 미디어 아트 센터로 손꼽히고 있음.

- 세계 최대의 온라인 미술 데이터베이스 회사 ArtFacts.Net에서는 ZKM을 뉴욕 현대 미술관, 베네치아 비엔날레, 파리 퐁피두 센터에 이어 4위의 박물관으로 선정한 바 있음.
- ZKM의 제안으로 시작된 카를스루에 궁전을 활용한 ‘궁전 라이트 쇼’ (Schlosslichtspiele Karlsruhe)는 현재 전 세계 많은 도시에 미디어파사드라는 이름으로 각양각색의 조명과 빛으로 선보이고 있는 축제들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카를스루에 시가 ‘미디어아트’ 분야로 유네스코 창의 도시가 된 배경에는 30여 년 전 세계 최초 ‘미디어아트’ 센터로 설립된 ZKM의 역할이 주요했다고 할 수 있음.

< 서울시 축제 개선방향 >

- 현재 서울시의 각종 축제는 문화본부 소관으로 그 기획을 공무원의 주도로 계획되고 있음. 서울시 산하의 문화·예술기관들보다 문화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울시 축제를 기획·조직하기에 시민들이 바라는 바와는 달리 혹은 이름만 거창하고 내실이 부족한 축제가 반복되는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 ZKM의 사례에서 서울시 산하의 문화·예술기관들의 본인들의 강점을 바탕으로 축제를 역제안하는 등 축제 기획부터 상향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탁상에서 만드는 축제가 아닌 현장이 제안하여, 문화적 역량이 풍부하고, 시민이 더욱 빠져들 수 있는 축제를 조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새로운 물음을 던지는 미디어아트 >

-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현대미술 중심의 전시를 진행함과 동시에 현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미디어아트를 조망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진행하고 있음.
- 미디어아트 분야의 선구자인 ZKM의 조언을 참고해봤을 때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최된 비엔날레라는 역사에 비해 국제적인 유명세나 인지도는 많이 부족한건 아닌지 살펴봐야할 지점이라고 생각함.
- 특히 국내 비엔날레 분야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광주비엔날레의 경우 세계 3대 미술 비엔날레인 베니스비엔날레에 병행전시를 하는 등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또한 미디어아트가 단순히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예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을 봤을 때 서울시립미술관이 개최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역시 미디어매체 예술보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선도적인 예술을 선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장방문 : 슈테델 미술관 (Städel Museum)

《 현 장 개 요 》

○ 방문지명 : 슈테델 미술관(Städel Museum) / 유료전시

○ 개 요

- 슈테델 미술관은 1817년 프랑크푸르트의 은행가이자 예술 후원가인 요한 프리드리히 슈테델(Johann Friedrich Städel)의 유언과 남긴 유산에 따라 설립되었음.
- 미술관에는 회화 3,100여점, 조각 660여점, 사진 4,600여점, 드로잉 및 판화 100,000여점의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해 35여만명의 사람들이 미술관을 방문하고 있음.
- 미술관은 1878년 완공되었으며, 제2차세계대전으로 인해 일부가 파괴되었다가 독일의 건축가 요하네스 크란(Johannes Krahn)의 설계에 따라 1966년 재건되었고, 현대 미술 컬렉션이 새롭게 수집되면서 전시관을 확장하였음.
- 미술관은 뮌제움스우퍼(Museumsufer)라고 불리는 마인강변의 박물관·미술관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홈페이지 : <https://www.staedelmuseum.de/>

□ 방문일시 : '24. 05. 12. (일) 10:00 ~ 12:00

□ 방문주소 : Schaumainkai 63, 60596 Frankfurt am Main

□ 방문목적

- 서울시는 청계천 박물관과 북서울 미술관 등 분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 명소와 교육 등의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조성되는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기능보다는 지역 커뮤니티 중심 혹은 역사와 미술의 세부 장르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주요 작품을 감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슈테델 미술관이 위치하고 있는 박물관거리를 시찰함으로써 앞으로 서울시가 건립하려는 박물관·미술관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여 문화관광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서울시 박물관·미술관의 특색 있고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 지원 방안 및 시설 활성화,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 방안 등 고찰.

□ 현장방문 사진



□ 방문내용

< 자체 콘텐츠 중심 박물관·미술관 구축 >

- 서울시는 2020년 ‘박물관·미술관 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강원도 횡성군에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금천구에 서서울미술관, 도봉구에 서울사진미술관, 서초동에 (가칭)보이는 수장고를 건립하고 있음.
- 다만 현재 건립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 등이 서울시의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 건립이 예정보다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기에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 또한 서울시는 박물관·미술관의 핵심 콘텐츠인 소장품 확대를 위해 기금 조례를 제안하고 설치하였으나, 기금 운용액은 기존 계획의 10분의 1 정도로 서울시 소관 5개의 박물관·미술관이 의미있는 소장품을 구입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음.
- 슈테델 미술관은 미술관 재단을 설립함과 동시에 미술관이 개관된 것이 아닌 미술관의 소장품 수집이 완료된 이후 미술관이 보유한 컬렉션에 부합하는 전시장 및 외관을 구성한 후 건립을 진행한 바 있음.
- 결국 선 착공, 후 소장품 수집을 하고 있는 서울시 박물관·미술관에 슈테델 미술관의 사례는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어떠한 콘텐츠를 마련하고 이를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어떻게 보여줄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고 판단됨.
- 특히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세계 5대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계 문화도시와는 차별화된 문화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그러므로 서울시는 박물관·미술관의 양적 성장에 집중하기 보다는 각 시설만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현장방문 : 하이델베르크 고성 (Städel Museum)

《 현 장 개 요 》

○ 방문지명 : 하이델베르크 고성(Heidelberg Castle) / 유료입장

○ 개 요

- 하이델베르크 고성은 13세기 초 건축되었으며, 초기에는 방어를 위한 성으로 건립되었으나, 점차 확장을 거듭하면서 팔라티노 백작의 거주지로 사용되게 되었음.
- 고성은 건축 이후 외부요인으로 인한 유실과 재건 그리고 확장으로 독일의 다양한 건축양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연간 300여만명의 관광객이 고성을 방문하고 있음.
- 현재 주로 관광객이 고성에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도보와 케이블카가 있음.
- 고성에는 왕정의 거주지뿐만 아니라 대규모 와인저장소, 약학박물관 등이 있음.
- 홈페이지 : <http://www.schloss-heidelberg.de/>

□ 방문일시 : '24. 05. 12. (일) 14:30 ~ 16:30

□ 방문장소 : Schlosshof 1, 69117 Heidelberg

□ 방문목적

- 성과 성을 둘러싼 성곽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이델베르크 고성은 서울의 대표 성곽 유산인 한양도성과 그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에, 현재 한양도성이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유산가치를 지지받을 수 있는 근거 및 홍보방안 등 고찰할 수 있음.
- 하이델베르크 고성의 보존·관리상태 탐방을 통해 한양도성의 보수·정비를 통한 시민 접근성 확대 및 안전 확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한양도성 원형 보존 및 유산가치 보호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수·정비 방법 등을 비교분석 하여, 한양도성의 지속 가능한 탐방 인프라 조성방안 도출

□ 현장방문 사진



단체사진



내부 현장 탐방



하이델베르크 고성 전경



약학박물관 탐방



현장 탐방



단체사진

□ 방문내용

< ‘성곽도시 서울’ 를 위한 타산지석 >

- 하이델베르크 고성은 17세기 팔라티노 왕위 계승 전쟁으로 인하여 중요 탑과 성벽이 파괴되었음. 이후 19세기 볼프강 뮐러(Wolfgang Müller)와 같은 문화인들에 의해 고성을 복원할 것인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보존할 것인지 논쟁이 있었음.
- 이 논쟁의 결론은 역사적 건축물이 그 역사를 그대로 알릴 수 있도록 현행과 동일하게 보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며, 이 기조는 현재까지도 일관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서울시는 ‘한양의 수도성곽’ 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 참석하여 유산의 가치를 홍보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한 탐방을 위해서 체계적인 보수·정비를 시행하고 있음.

- ‘한양의 수도성곽’ 인 한양도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서울이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미 기존의 성곽유산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많은 도시들과 더불어 ‘성곽도시 서울’로서 그 위상이 승격될 것임.
- 유네스코에서는 유산의 원형복원이 불가능할 경우 확실한 원형보존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무리한 복원 대신 보존을 선택한 하이델베르크 고성 사례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론의 장을 통하여 우리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한양도성’ 을 보존·유지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한양도성’ 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선 문화재청의 등재신청 대상이 되어 등재신청서가 공식적으로 유네스코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후 서면 심사와 실사를 거치게 되어 있음.
- 특히 실사 단계에서 유네스코는 국제 기념물 유적 협의회(ICOMOS) 등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의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국내 전문가와 함께 심사를 수행하며 동시에 문화유산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들과 면담도 진행되기에 ‘한양도성’ 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없다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불투명해질 것임.
- ‘한양도성’ 은 이미 2017년 자문기구 심사결과 ‘등재불가’ 권고를 받아 등재 철회를 결정한 바 있으므로 재등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한양도성’ 이 이번에는 한번에 등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임.

현장방문 : 라인 뤼데샤임 일대

《 현 장 개 요 》

○ 방문지정보

- 방문지명: 드로셀가세, 니더발트 기념탑
- 뤼데샤임 면적 51km²/인구 1만 명

○ 개 요

- 라인강의 진주라 불리는 라인강변의 도시 뤼데샤임(Rudesheim am Rhein)은 아름다운 경관과 넓은 포도밭, 유람선 관광으로 유명함
-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목으로 손꼽히는 드로셀가세(Die Drosselgasse, 일명 티티새골목)에는 돼지고기, 감자, 소시지가 주메뉴인 레스토랑(노천카페)과 와인숍, 호텔, 박물관 등 주요 관광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와 밤늦도록 참새처럼 재잘거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참새골목이란 별명으로 더 알려짐
- 곤돌라를 타고 전망대인 니더발트까지 올라가 독일의 통일을 기념하여 건립된 니더발트 기념탑(게르만 여신상)에서 라인강을 조망할 수 있음

□ 방문일시 : '24. 05. 13. (월) 14:00 ~ 16:30

□ 방문주소 : 65385 Rudesheim am Rhein

□ 방문목적

- 서울시는 지역의 희소성 있는 생활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생활 핫플 및 골목길 명소 발굴·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드로셀가세의 골목 사례를 통해 서울시 핫플레이스 및 골목길의 발전·홍보방안 등 벤치마킹
- 인구 1만 명, 면적 51km²에 불과한 소도시 뤼데샤임에 연간 3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실거주지와 근접한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및 지자체의 대응방안 벤치마킹

□ 현장방문 사진



□ 방문내용

< 뤼데샤임의 골목과 역사문화 >

- 뤼데샤임은 라인 강가의 포도밭과 고성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소도시로, 드로셀가세라는 이름의 골목과 프랑스와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니더발트 기념비 등이 유명함.
 - 드로셀가세(Drossel: 지빠귀 + Gasse: 골목)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골목 중 하나이며, 길이 144미터 폭 2미터의 좁은 골목 양편에 레스토랑, 맥주집, 와인전문점, 기념품점 등이 자리잡고 있음.
 - 니더발트 기념비는 1871년 프로이센 시절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통일제국을 선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전체 높이는 38m에 이르고 중량은 75톤에 이르는 규모를 자랑함.
- 독일의 전통 골목과 통일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두 장소는 아름다운 경관, 역사 탐방과 더불어 지역 특산물인 좋은 품질의 와인을 맛볼 수 있어 근거리에서 눈과 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관광명소임.

< 서울의 골목 관광 >

- 서울의 유명 골목으로는 최근 젊은이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경리단길, 성수동 카페거리, 연트럴파크, 망리단길, 익선동, 합정동, 이화벽화마을 등 많은 곳이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나, 세대를 아울러 관광객이 찾는 드로셀가세와는 차이가 있음.
- 서울 시내 골목은 젠트리피케이션과 유행의 빠른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 발전과 동시에 쇠퇴를 우려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젊은 세대만의 관심만으로는 골목 관광이 꾸준히 유지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따라서 외형적으로 과거 골목의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관광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골목마다의 고유 콘텐츠와 스토리 개발이 필요하며, 전통과 향수에 목말라하는 세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경관을 활용한 관광명소 조성 >

- 한편 니더발트 기념비는 휘데샤임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에 위치해 독일의 주요 역사와 경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곳곳에 아름답디 나무와 잔디밭이 준비하여 관광명소인 동시에 찾는 이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음.
- 서울 역시 한강과 명산을 자랑하고 있으며, 전경을 즐길 수 있는 많은 장소를 가지고 있음. 다만, 언덕에 위치한 명소는 대부분 쉼과 머무름을 위한 공간보다는 이동길, 트레킹코스로 활용되거나 카페로 조성돼 비용 부담 없이 쉴 수 있는 장소는 많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걸을 수 있는 골목, 거리는 상권과 더불어 개발하되 쉴 수 있는 곳은 마음껏 쉬었다 갈 수 있는 서울의 명소를 조성한다면 머무름과 쉼의 미학을 원하는 관광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장방문 : 괴테의 생가 (Goethe House)

《 현 장 개 요 》

○ 방문지명 : 괴테의 생가

○ 개 요

- 독일의 철학자 요한 볼프강 괴테가 태어나고 자란 생가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을 집필한 곳으로도 유명하며, 부르주아 로코코 건축양식과 18세기 가정집의 모습을 볼 수 있음
- 비영리 연구기관 Freie Deutsches Hochstift에서 운영 중이며, 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
- 홈페이지 : <https://frankfurter-goethe-haus.de>

□ 방문일시 : '24. 05. 14. (화) 16:00 ~ 17:00

□ 방문장소 : Grosser Hirschgraben 23-25, 60311 Frankfurt am Main

□ 방문목적

- 서울시는 백인제 가옥, 박정희 가옥, 최규하 가옥과 같이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사택 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있으나, 관광 자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에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사택 유산(단일 건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하고 함.

□ 현장방문 사진



정문 앞 설명



프런트



실내 설명



층간 계단

실내 작품 전시

박물관

□ 방문내용

< 괴테의 생가 연혁 및 현황 >

- 1749년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태어나고 자란 생가이며, 4층 높이의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저택임. 괴테의 아버지는 황실 고위 관료였고 어머니는 시장의 딸이었던 덕택에 당시 유복한 중산층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곳임.
- 현재 건물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붕괴되어 전후에 재건한 것이지만 당시의 모습이 잘 보존되도록 복원되었음. 전쟁 중 소실을 피하기 위해 가구와 용품은 미리 옮겨두었던 덕분에 과거의 모습을 원형 그대로 확인할 수 있음.
- 프런트를 지나 생가 입구에는 각국의 언어로 방의 위치와 설명을 담은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으며, 방문객은 개별적으로 이를 지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방에 대한 대강의 이해를 돕고 있음.
 - 우리 위원회 방문 직후에는 기존 독일어와 영어로만 제공됐던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를 한국어로도 제공하고 있어 한국인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괴테의 생가는 세계적인 대문호 괴테의 삶에 대한 호기심, 고딕 양식으로 건축된 저택, 1700년대 중산층의 삶, 당시대 원형을 고스란히 보존된 가구 등 괴테라는 인물에 대한 매력을 바탕으로 관광객에게 매력이 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

< 서울시 가옥유적지 활용 방안 >

- 이에 비해 서울시의 백인제 가옥, 박정희 가옥, 최규하 가옥 등은 역사적 인물이 머물렀던 가옥을 박물관화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인물들은 국외 관광객에게는 큰 매력이 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한옥 또는 현대사적인 건축물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이 있어 사실상 박물관적 가치 외 관광상품으로서의 매력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가옥들은 관광명소화하기 보다는 박물관적 가치를 보존하고 알리는 데 집중하고, 교육자료로서의 가치를 제고하되 기성세대의 향수를 자극할 만한 콘텐츠 요소를 개발·결합하여 해당 가옥들만의 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현장방문 : 뢰머광장 일대

《 현 장 개 요 》

○ 방문지명 : 뢰머광장, 구 시청사, 대성당, 마인강변

○ 개 요

- 뢰머광장은 9세기부터 프랑크푸르트 국제박람회가 열린 상징적인 장소이며, 1980년대 현대건축가인 반게르트와 얀센이 150미터 인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대성당을 잇는 쉬른 미술관을 건설한 바 있으며, 프랑크푸르트 역사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사진미술관, 괴테생가, 만화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일본미술관 등 박물관·미술관이 인근에 포진해 있어 프랑크푸르트의 역사·예술문화를 집중해 관찰할 수 있는 지역임
- 성 바르톨로메오 대성당이라고 불리는 프랑크푸르트 대성당은 13세기에 완공되어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대관식이 거행된 장소이며, 14세기 만들어진 ‘천국의 문’ 스테인드글라스는 프랑크푸르트 대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음
- 프랑크푸르트시를 관통하는 마인강에는 아이젤너 다리가 있는데, 뢰머광장 남쪽에 위치한 마인강의 대표적인 철제 보행교로 마인강변을 감상할 수 있고, 1340년대부터 시작된 마인강 페스티벌(Mainfest, 2024.8.2.~8.5.)이 열리는 중심지이며, 최근 다리 주변의 카페거리가 형성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관광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방문일시 : '24. 05. 15. (수) 14:00 ~ 16:00

□ 방문장소 : Römerberg 26, 60311 Frankfurt am Main

□ 방문목적

- 뢰머광장, 구 시청사, 프랑크푸르트 대성당 시찰을 통해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마켓, 서울 빛초롱 축제, 책 읽는 서울광장 등 광장의 활용을 통한 문화콘텐츠 발굴에 기여
- 방문기간 중 프랑크푸르트 10대 축제 중 하나인 오페라 광장 페스티벌을 직접 경험하고, 음악·미디어파사드·빛·음식 등이 주요 콘텐츠인 서울시의 노들섬 서울재즈페스타(10월), 서울윈터페스타(12월), 서울미식

주간(11월) 및 각종 축제 등과 비교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발굴

- 세계 관광객들이 모이는 마인강변의 문화·관광자원을 관찰하고, 서울시장 역점사업인 서울관광 3377 및 한강르네상스 2.0에 도입할 수 있는 정책 발굴

□ 현장방문 사진



□ 방문내용

< 뢰머광장 등 연혁 및 현황 >

- 뢰머광장은 9세기부터 축제, 집회가 열려온 독일의 대표 광장으로서 역사적인 명소이며, 대성당을 비롯해 광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각종 박물관과 미술관이 건립되면서 역사·예술문화를 한눈에 탐방할 수 있는 장소임.
- 특히 대성당에서는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대관식을 거행하고, 시청사 건물에서는 축하연을 열었을 정도로 상징적인 장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차범근 감독이 선수 시절 프랑크푸르트 축구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던 장소로 유명함.

- 프랑크푸르트 지역에서의 축제와 집회가 열린다고 하면 이곳 광장을 무조건 찾을 정도로 시민과 관광수요층에 깊이 각인돼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음.

< 서울시 광장 현황 및 특징 >

- 서울시의 대표 광장이라고 하면 시청광장과 광화문광장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광장은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며 매년 시즌별로 광장마켓, 빛초롱축제, 책읽는 서울광장 등의 행사가 개최되고 있음.
- 그러나 퇴머광장의 경우와는 달리 개별 행사가 광장별로 고유 콘텐츠로 자리잡지 못함에 따라 별도 홍보 수단의 노출 없이는 시민들이 이동 통로 이외의 목적으로 광장을 찾지 않고 있음.
 - 경복궁, 세종대왕상, 이순신 장군상과 같이 광화문의 상징적인 시설과 구조물이 존재하기는 하나, 넓은 거리 형태의 광장 구조상 머무르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광화문만의 고유 콘텐츠와 결합된 브랜딩이 필요함.
- 시청광장의 경우 잔디밭 광장에 시즌별 행사를 개최되고 있으나 사업의 형태에 따라 광장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돼 이용이 어려운 기간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한편 겨울철 광장 스케이트와 같이 오랜 기간 반복적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도 존재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 전역의 열린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축제 및 행사를 시즌별로 반복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관광 콘텐츠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공무원 여비 규정」 등
 - 의원별, 직원 직급별, 도시등급별 등 국외여비 지급 기준
-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 의원 1인당 400만원(한도), 직원 1인당 400만원(한도) 예산배정

□ 집행금액 : 48,002,920원

구 분	집행액(원)	비 고
의원여비	23,371,680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 사업, 의회운영 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회비, 의원국외여비(205-04)
직원여비	14,281,240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 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여비, 국외업무여비(202-03)
사무관리비	5,100,000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 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50,000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 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의정운영공통경비	3,000,000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교류 사업, 의회운영 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합 계	48,002,920	

□ 산출근거

○ 의원 여비 : 23,371,680원

(단위 : 원, \$)

구분	예산 청구액	공무국외여행 여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준비금(C) (여행자보험)
		합계 (A+B+C)	항공료 (A)	체 재 비(\$)				
				소계(B)	일비	숙박비 (실비상한)	식비	
계	23,371,680	23,371,680	12,269,400	\$7,875	\$735	\$4,800	\$2,340	172,860
				10,929,460	1,020,080	6,661,770	3,247,610	
이종환	3,920,870	3,920,870	2,044,900	\$1,312.5	\$35×7일 ×50% =\$122.5	\$160×5박 =\$800	\$78/3×15식 =\$390	54,400
				1,821,570	170,010	1,110,290	541,260	
김원중	3,918,680	3,918,680	2,044,900	\$1,312.5	\$35×7일 ×50% =\$122.5	\$160×5박 =\$800	\$78/3×15식 =\$390	52,210
				1,821,570	170,010	1,110,290	541,260	
김규남	3,881,390	3,881,390	2,044,900	\$1,312.5	\$35×7일 ×50% =\$122.5	\$160×5박 =\$800	\$78/3×15식 =\$390	14,920
				1,821,570	170,010	1,110,290	541,260	
문성호	3,882,450	3,882,450	2,044,900	\$1,312.5	\$35×7일 ×50% =\$122.5	\$160×5박 =\$800	\$78/3×15식 =\$390	15,980
				1,821,570	170,010	1,110,290	541,260	
이효원	3,881,520	3,881,520	2,044,900	\$1,312.5	\$35×7일 ×50% =\$122.5	\$160×5박 =\$800	\$78/3×15식 =\$390	15,050
				1,821,570	170,010	1,110,290	541,260	
아이수루	3,886,770	3,886,770	2,044,900	\$1,312.5	\$35×7일 ×50% =\$122.5	\$160×5박 =\$800	\$78/3×15식 =\$390	20,300
				1,821,570	170,010	1,110,290	541,260	

※ 산출기준(항공권은 공무국외여행 심사 이후 구매 예정으로 금액 등 변경될 수 있음)

- ▶ 여비(일비/숙박비/식비), 여비등급(제1호라목) : 원단위 절사
 - 국가등급 : 나등급(독일) / ◦ 일비 7일, 숙박비 5일, 식비 15식
- ▶ 기준환율 : USD 1=1,387.87원 ('24.4.11, 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직원 : 14,281,240원

(단위 : 원, \$)

구분	예산 청구액	공무국외여행 여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준비금(C) (여행자보험)
		합계 (A+B+C)	항공료 (A)	체 재 비(\$)				
				소계(B)	일비	숙박비 (실비상한)	식비	
계	14,281,240	14,281,240	8,179,600	\$4,340 6,023,340	\$420 582,900	\$2,740 3,802,760	\$1,180 1,637,680	78,320
오주석	3,575,480	3,575,480	2,044,900	\$1,085 1,505,830	\$30×7일 ×50% =\$105 145,720	\$137×5박 =\$685 950,690	\$59/3×15식 =\$295 409,420	24,750
임창균	3,570,040	3,570,040	2,044,900	\$1,085 1,505,830	\$30×7일 ×50% =\$105 145,720	\$137×5박 =\$685 950,690	\$59/3×15식 =\$295 409,420	19,310
심형준	3,569,010	3,569,010	2,044,900	\$1,085 1,505,830	\$30×7일 ×50% =\$105 145,720	\$137×5박 =\$685 950,690	\$59/3×15식 =\$295 409,420	18,280
정재윤	3,566,710	3,566,710	2,044,900	\$1,085 1,505,830	\$30×7일 ×50% =\$105 145,720	\$137×5박 =\$685 950,690	\$59/3×15식 =\$295 409,420	15,980

※ 산출기준(항공권은 공무국외여행 심사 이후 구매 예정으로 금액 등 변경될 수 있음)

▶ 여비(일비/숙박비/식비), 여비등급(제2호) : 원단위 절사

◦ 국가등급 : 나등급(독일) / ◦ 일비 7일, 숙박비 5일, 식비 15식

▶ 기준환율 : USD 1=1,387.87원 ('24.4.11, 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사무관리비 : 5,100,000원

- 차량임차료 : 5,100,000원(6일)

○ 의정운영공통경비 : 3,000,000원

- 차량임차료 : 2,100,000원(6일)

- 통역비 : 900,000원(3개 기관)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250,000원

- 상임위 비교시찰 관련 기념품, 간담회 개최 등

□ 기관방문 관련 언론보도 현황

구 분	언 론 보 도
라인란트팔츠 주의회 (8개)	(서울신문) 서울시의회 문광위,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 방문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5/16)
	(데일리한국) 서울시의회,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와 문화·관광 활성화 논의(5/16)
	(TBS)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독일 방문 문화·관광 활성화 논의(5/16)
	(스카이데일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 방문(5/16)
	(투어코리아뉴스) 서울시의회 문광위,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 방문 문화·관광 활성화 논의(5/16)
	(디스커버리뉴스) 서울시의회 문체위,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 방문 우호 증진 및 협력방안논의(5/16)
	(이뉴스투데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 방문(5/16)
	(비즈월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 방문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5/16)
IMEX Frankfurt 2024 (7개)	(서울신문) 서울시의회 문광위, 2000조원 마이스 시장 선점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장요원 활동(5/17)
	(경인매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장요원 활동(5/17)
	(투어코리아) 서울시의회 문광위, ‘2025 국제컨벤션협회 총회’ 유치 지원(5/17)
	(뉴스프리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MEX 프랑크푸르트 2024’ 방문(5/17)
	(이뉴스투데이) 서울시의회, ‘2025 ICCA 총회’ 서울 유치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장요원 활동(5/17)
	(뉴스메이커) 서울시의회 문체위 ‘25 국제컨벤션협회 총회’ 서울 유치 총력(5/17)
(디스커버리뉴스) 서울시의회 문체위, 2,000조원 마이스시장 선점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장요원 활동(5/17)	
DOSB ZKM (6개)	(서울신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독일 문화체육관광분야 유대관계 강화 위해 노력(5/20)
	(데일리한국) 서울시의회, 독일과 문화체육관광분야 관계 강화 노력(5/20)
	(투어코리아) 서울시의회 문광위원회, 서울시-독일과 문화·체육 협력 모색(5/20)
	(비즈월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서울시-독일 문화체육관광분야 유대관계 강화위해 적극 노력” (5/20)
	(디스커버리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체위, ‘독일 올림픽 체육연맹(DOSB) 예술과 미디어센터(ZKM)방문’ (5/20)
(이뉴스투데이) 서울시의회, 서울시-독일과의 문화체육관광분야 유대관계 강화(5/20)	

서울신문

서울시의회 문광위,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 방문...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입력 2024.05.16. 오전 9:47

이종환 위원장 “문화와 체육 분야는 양국 인구 고령화 극복의 열쇠”
김규남 의원 “문화재 보존과 지역 개발 가치, 주민의견 반영 꼭 필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해외 비교 시찰을 위해 독일을 방문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독일 현지 시각으로 지난 13일 오전 독일 16개 연방주 중 하나인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에 방문해 자유시민연합 파트릭 쿤츠 의원 등과 만나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서로의 상황과 해결 사례를 공유, 우호 증진을 위한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 라인란트팔츠주는 룩셈부르크와 벨기에가 맞닿아 있는 국경지대로 40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라인강 등 문화·자연환경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해왔다. 특히 최근 라인란트팔츠주는 '관광전략 2025'를 발표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방문은 서울시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3·7·7 관광정책'을 발표하고 서울페스타, 리버시티 서울 등의 구체적인 전략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서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서로의 상황과 해결 사례를 공유, 우호 증진을 위한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중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쿤츠 의원은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라인란트팔츠주의 카니발을 예로 들며 최근 이를 관광상품화하는 정책이 주 차원에서 시행 중임을 소개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발현된 축제의 성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문화재를 통한 관광정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근처에 설치된 코블렌츠 케이블카는 2007년 설치 논의가 이뤄질 당시 시민단체와 유네스코로부터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해 관광수요를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 서울시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의 개발 정책으로 유네스코가 현황보고서를 요청하면서 경관 가치의 훼손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이다.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문화재 주변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갈등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라인란트팔츠의 사례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쿤츠 의원은 “만약 개발이 필요하다면, 유네스코의 입장에서 설득 논리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국의 인구 고령화에 대한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최근의 OECD 인구데이터를 살펴보면 독일은 OECD 평균인 17.3%보다 높은 21.5%의 노인인구 비율을 보인다. 한국의 경우 14.9%로 OECD 평균보다는 적지만 타 국가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여 향후 5년 안에 독일보다 높은 노인인구 비율을 기록하리라는 것이 OECD의 연구 결과이다.

쿤츠 의원은 "라인란트팔츠 주의 경우, 아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노인들이 유소년 지도 등을 통해 사회적 이바지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 중"임을 밝히며 "결과적으로는 전세대가 참여하는 스포츠 정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를 방문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위원장(국민의힘·강북1)은 "증가하는 고령 인구의 의료비 등 사회적인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포츠를 통한 건강 증진 정책 등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의 경우 시니어친화형 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의 물리적인 시설 증대가 첫 번째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쿤츠 의원에게 서울시 우수관광상품을 초청 선물로 건네며 서울 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향후 양 의회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쿤츠 의원은 "세계단일위원회의 대표로 아시아 국가 도시 의회의 첫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고, 이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많은 정책 사례가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양 도시의 새로운 정책 발굴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신문

서울시의회 문광위, 2000조원 마이스 시장 선점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장요원 활동

입력 2024.05.17. 오전 9:53

'IMEX 프랑크푸르트 2024' 서울 홍보관 참여사 격려, 치맥 페스타도 직접 진행
'2025 ICCA 총회' 서울 유치 위해 각국 홍보관 방문, 서울 전체 뜨거운 관심 알려

이중환 위원장 "미래 먹거리 마이스 관광에 서울시가 적극 투자 나서야"



지난 14일(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IMEX 프랑크푸르트 2024' 박람회장을 방문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중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IMEX 프랑크푸르트 2024' 박람회장을 방문해 서울 및 각국 홍보관을 찾아 현재 각축전인 '2025 국제컨벤션협회 총회' 유치전에서 서울시의 승리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IMEX 프랑크푸르트 2024'는 매년 독일과 미국에서 개최되는 마이스(MICE) 관광 전문 박람회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Messe Frankfurt에서 개최되며, 서울시는 서울관광재단과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SMA)에서 서울 홍보관을 운영해 각국의 예비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900개 업체가 전시에 참여해 94개국 3883명의 바이어가 다녀갔으며, 서울 홍보관은 233건의 상담 중 58건의 신규 수요를 발굴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국제 마이스 시장이 약 2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하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평가하고 있어 마이스 업계 선두주자인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2025 국제컨벤션협회(ICCA) 총회'를 서울에서 유치하기 위한 홍보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약 3주 후 총회 개최지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유치전에 뛰어든 각국은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IMEX 프랑크푸르트 2024' 박람회장을 방문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종환)

국제컨벤션협회는 세계 최대 마이스 전문 기구로서 1963년 설립돼 총 91개국 1100개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1월경 개최되는 총회에서는 마이스 업계 선도를 위한 전략적 논의, 교육 및 토의 등을 열어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연례총회에는 세계 80여개 기관과 1000여 명의 국제 마이스 주최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업계는 총회 개최 시 약 118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발

생시킬 것으로 예측한다.

서울시는 향후 국제컨벤션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지난해 8월 서울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MICE협회, 코엑스, 파르나스호텔 등과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유치전에 뛰어든 바 있다.

서울시 관광체육국과 서울관광재단은 이번 박람회 총회 개최지 발표 전 마지막 공식행사인 만큼 서울시의 문화·체육·관광 관련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지로 초청하면서 이번 방문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공식 행사 시작 전 서울 홍보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번 박람회를 준비한 서울관광재단을 비롯한 회원사와 관계자 모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이스를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동향과 서울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질의응답으로 이어갔다.

간담회에서 이효원 의원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K-POP 등 한류의 영향력으로 유럽권 여행객의 수적 증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콘텐츠에 관한 연구와 홍보가 시급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전하고,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가 지역별로 마이스 인프라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흩어져 있는 기반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외래 관광객 증가를 위한 내용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IMEX 프랑크푸르트 2024' 박람회장을 방문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종환)

이후 위원회는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아부다비 등 각국 주요 홍보관에 직접 들러 마이스 관광에 대한 서울시의 높은 관심도를 알린 후, 국제컨벤션협회(ICCA) 홍보관을 찾아 '2025 국제컨벤션협회 총회' 개최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자신감과 함께 총회 유치에 대한 강한 열망을 피력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치맥 페스타에 참여해 서울 홍보관을 찾은 방문객에게 치킨, 맥주, 떡볶이 등의 음식을 직접 나누어 주며, 현장에서 K-콘텐츠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인기를 실감하기도 했다.

일정을 마친 후, 이종환 위원장은 "마이스 관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금이야말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적기"라면서 "우리 위원회가 '2025 국제컨벤션협회 총회' 개최에 대한 서울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현지까지 찾아온 만큼 최선을 다해 응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독일 문화체육관광분야 유대관계 강화 위해 노력

입력 : 2024-05-20 15:37 | 수정 : 2024-05-20 15:37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독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선도기관인 독일 올림픽 체육연맹(DOSB), 예술과 미디어센터(ZKM)를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서울시 관계기관과의 구체적인 네트워킹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5일(현지 시각) 오전 독일 올림픽 체육연맹(Deutscher Olympischer Sportbund: DOSB)을 방문해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관련 정보를 교환, 서울시와의 우호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독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선도기관인 독일 올림픽 체육연맹(DOSB), 예술과 미디어센터(ZKM)를 직접 방문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종환)

현재 한국과 독일을 각각 서울과 베를린이 2036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IOC '유치희망도시'로 등록하고 물밑작업을 진행 중이다. 카트린 그라파렌트(Katrin Grafarend) DOSB 국제부 부장은 시찰단에 "양 도시가 올림픽 유치에 대해 경쟁관계에 있지만 윈-윈하기 위한 전략에는 충분히 공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종환 위원장(국민의힘-강북1)은 "공조가 허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별, 종목별 체육 단체들의 구체적인 MOU체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만간 서울시 체육회, 종목별 단체 등의 독일 단체들과의 MOU 체결 등으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DOSB에서는 전세계적으로 e스포츠 강국인 한국과 독일의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DOSB는 2021년 홈페이지를 통해 "e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은 e스포츠가 정식으로 채택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며 투자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e스포츠야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겨루는 진정한 스포츠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을 포함한 전세계가 e스포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재정립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라파렌트 부장은 "조만간 독일도 e스포츠가 스포츠 활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화답했다.



독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선도기관인 독일 올림픽 체육연맹(DOSB), 예술과 미디어센터(ZKM)를 직접 방문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튿날인 16일(현지 시각) 카를스루에시에 있는 '예술과 미디어센터(Center for Art and Media : ZKM)'를 방문해 문화예술 방면의 협력관계 구축도 꾀했다.

이날 ZKM에서는 알리스테어 허드슨(Alistair Hudson)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헬가 헛캄프(Helga Huskamp) 최고운영자, 필립 지글러(Philipp Ziegler) 수석 큐레이터가 시찰단을 예방했다.

ZKM은 오스트리아 린츠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AEC)와 일본 동경의 인터 커뮤니케이션 센터 (ICC)와 더불어 세계 3대 미디어아트 센터로 손꼽히고 있으며, 카를스루에 시가 '미디어아트' 분야로 유네스코 창의 도시가 된 배경에 큰 역할을 했다.

김원중 부위원장(국민의힘·성북2)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같은 서울시의 각종 미디어아트 사업과 현재 '미디어아트' 선구자인 ZKM의 사업들과 면밀한 비교가 필요하다"면서 "서울시립미술관이 진행하고 있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평가해달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지글러 수석 큐레이터는 "세계적으로 아직 시장규모가 작은 미디어아트의 발전을 위해 매년 특별전시를 시행한다면 서울의 매체예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조언했다.



독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선도기관인 독일 올림픽 체육연맹(DOSB), 예술과 미디어센터(ZKM)를 직접 방문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종환)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현재 세계 여러 도시에서 펼쳐지는 미디어파사드 축제의 시작을 만든 것이 ZKM의 제안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ZKM의 제안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인 축제가 된 솔로스리히츠피레라는 우수한 사례에서 많은 점을 서울시가 배워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지글러 수석 큐레이터는 "한국은 최신의 기술을 보유한 국가이기에 이러한 점과 더불어 예술가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와 예술성을 접목할 수 있다면 솔로스리히츠피레의 명성도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서울시의 미래먹거리로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선진도시의 사례들을 우리 정책 실정에 맞게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서울시뿐 아니라 산하 관계기관에서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